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낙관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오 중 철

2017년 8월

#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낙관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오 중 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오중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낙관성의 매개효과

오 종 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500부 중 무성의하게 답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4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장계영(2009)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적응성 검사, 이기학(2001)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 척도,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생활지향검사 개정판(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조하나(2002)가 변안한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상관분석, 매개효과 분석 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

타났으며, 진로장벽과 낙관성간에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낙관성과 진로적응성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장애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낙관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가 진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 내담자를 위한 상담에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낙관성**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3. 연구모형 .....	6
II. 이론적 배경 .....	7
1. 진로적응성 .....	7
가. 진로적응성의 개념 .....	7
2. 진로장벽 .....	10
가. 진로장벽의 개념 .....	10
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	11
3. 낙관성 .....	13
가. 낙관성의 개념 .....	13
나. 진로장벽과 낙관성,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 .....	14
III. 연구방법 .....	16
1. 연구대상 및 절차 .....	16
2. 측정도구 .....	18
가. 진로적응성 .....	18
나. 진로장벽 .....	19
다. 낙관성 .....	20
3. 자료처리 및 분석 .....	21
IV. 연구결과 .....	22
1.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	22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	24

3.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26
4.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하위요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28
가.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28
나.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0
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2
라.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4
마.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외적장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6
<b>V. 논의 및 결론 .....</b>	<b>38</b>
1. 결과 요약 및 논의 .....	38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42
<b>VI. 참고문헌 .....</b>	<b>45</b>
<b>Abstract .....</b>	<b>51</b>
<b>부 록 .....</b>	<b>53</b>

# 표 목 차

표 III-1. 모집단(제주특별자치도 4개 대학 재학생 수) .....	16
표 III-2.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	17
표 III-3. 진로적응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18
표 III-4. 진로장벽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19
표 III-5. 낙관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0
표 IV-1. 진로장벽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	23
표 IV-2. 변인간의 상관계수 .....	24
표 IV-3.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26
표 IV-4.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28
표 IV-5.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0
표 IV-6.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2
표 IV-7.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4
표 IV-8.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외적장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6

# 그림 목 차

그림 I-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모형 .....	6
그림 IV-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26
그림 IV-2.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29
그림 IV-3.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0
그림 IV-4.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2
그림 IV-5.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4
그림 IV-6.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외적장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	3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각종 신문과 방송,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만큼의 노력과 사회에 기여한 결과에 따라 인정받기 보다는 의지와는 무관한 요인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각종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헬조선’은 조선과 지옥의 합성어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말하며,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 ‘청년실신시대’는 청년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대,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세대, ‘열정페이’는 일에 대한 경험을 급여 대신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소한 부모세대 만큼이라도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2012년까지 7%대였던 20~29세 청년실업률은 2016년에 9.8%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경제 위기와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대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용시장으로 내몰아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대학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다(장계영, 김봉환, 2011). 그러나 자신의 진로와 전문적 직업영역에 대하여 충분한 탐색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상 대학생들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못한 채 스펙 쌓기 위주의 취업준비와 진로환경에 놓여 있다(손은령, 이순희, 2012).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기 보다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이른바 ‘묻지 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고 있다(손영민, 2016).

장선량, 김혜영(2004)의 재학생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상담실을 방문한 학생들이 호소하는 주요 문제는 졸업 후 진로, 전과 등 진로선택 및 결정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급변하는 진로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다. 졸업 후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진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조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 선택과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것이 진로적응성이다(조현주, 2012).

진로적응성이란 “직업과 직업 상황에서 변화에 의해서 촉진되는 예측할 수 없는 적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Super & Knasel, 1981),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혹은 태도 또는 행동력 등을 말한다(박현영, 2011).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직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로적응성이다(조은정, 이혜경, 2014). 또한 진로적응성은 대학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서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직무역할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예상 가능한 일들뿐만 아니라 일의 형태나 근무형태 등의 작업환경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을 의미한다(Savickas, 1997).

이처럼 진로적응성은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로 및 사회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발달과업 달성을 위한 준비 정도를 예언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진로발달과업의 달성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직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준비성을 나타내는 진로적응성은 대학생의 진로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떠한 요소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선택, 진로결정, 진로실행력 등 진로적응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장애요인 중 하나이며, 진로 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적응 및 수행과정

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손은령, 2001). 여기서 내적 요인은 심리적인 측면의 장벽들을 말하며, 외적요인은 심리적인 측면 외의 장벽들로 주로 환경과 관련하여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이다. 이러한 장벽들은 진로선택, 취업, 직장생활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손은령, 2001). 결국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관련된 경험들 즉, 취업, 진학, 직업의 결정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나 상황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조현주, 2012). 이처럼 진로장벽은 대학생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진로장벽의 객관적인 실체보다는 진로장벽을 마주한 대학생이 진로장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현실적인 진로장벽과 마주하더라도 상담장면에서 진로장벽의 인식수준을 낮추는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성격적 특성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진로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김지연, 황매향, 2004; 김나래, 2013). 또한 최근 상담분야에서 내담자의 문제 중심적인 면보다 내담자의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어 내담자의 성장 동기를 살피고자 하는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전주연, 송병국, 2014). 급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진로 및 사회환경에서 대학생들의 강점과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인지적 요소를 통하여 상담장면에서 개입한다면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적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인지적 요소가 낙관성이다. 낙관성은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방향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낙관성이라는 성향을 통해 진로적응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박수현, 2015). 이에 성격적 특성 중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장벽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상담장면에서 적용이 용이한 인지적 변인을 제시한다면 절망적인 취업률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졸업 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변인 중 진로장벽에 초점을 두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변인에 속하는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외적장애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진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이 인식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대학생이 인식하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대학생이 인식하는 외적장애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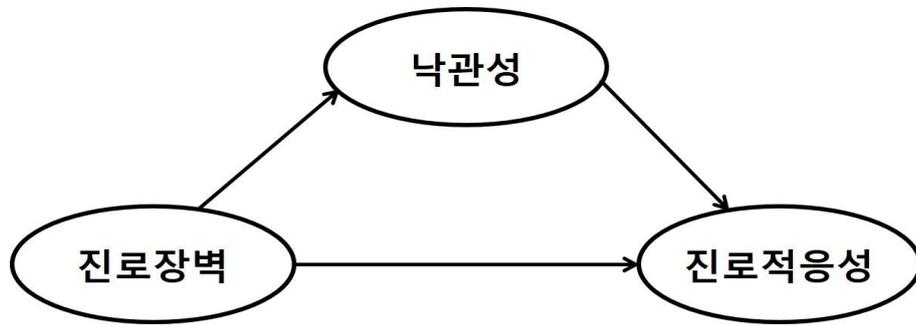


그림 I-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적응성

#### 가. 진로적응성의 개념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으로 인해 잦은 이동과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경쟁력 및 특정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Tolentino et al., 2014).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Super & Knasel, 1981)로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손은령, 이순희, 2012). 진로적응성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연하고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영, 배성아, 2014). 진로적응성이 중요한 이유는 진로적응성이 높은 개인은 보다 많이 노력하고 자신의 진로계획에 보다 편안함을 보고하며, 진로통찰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Rottinghaus, Day & Borgen, 2005). 신갑숙(2012)은 진로적응성이 직업적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전반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진로탄력성과 진로성숙도가 진로적응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Goodman, Schlossberg & Anderdon, 2006). 진로적응성과 진로탄력성은 좋지 않은 환경적 조건 혹은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고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진로탄력성은 이미 닦쳐와서 극복해낸 과거 역경상황에 대한 회복력을 나타내는 성질로 과거지향적인 반면 진로적응성은 아직 오지 않은 환경적 변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태도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다(손영민, 2016). Super와 Knasel(1981)이 진로적응성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도라고 말한 것처럼, 미

래의 적응 능력은 과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통하여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적응성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탄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남희와 홍은실(2011)은 진로적응성과 진로성숙도가 직업결정을 하기 위해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를 연속적인 발달개념으로 보되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는 것이다(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그러나 진로적응성은 성숙의 개념을 제거하고 재탐색과 재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함으로써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개인차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조은정, 이혜경, 2014).

대학생 대상의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Creed, Fallon, Hood(2009)는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소로 진로탐색, 자기탐색, 의사결정, 자기조절의 4개 요인을 제안하였다. Hirschi(2009)는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으로 진로성숙,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신감을 제안하였고, Asford와 Taylor(1990)은 낙관성, 개방성, 학습경향, 내적통제소재, 일반자기효능감 등으로 진로적응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Pulakos 등(2002)은 진로적응성 요인을 위기상황 다루기, 일 스트레스 다루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과제학습, 불확실성 다루기, 대인적응성, 문화적응성, 신체적응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장계영(2009)은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으로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주도성, 개방성, 직무능력, 긍정적태도의 8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진로적응성은 Super의 전생애주기-생애공간이론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최근 들어 진로성숙의 개념을 대체하는 변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Goodman, 1994). 진로성숙은 진로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준비도(Super & Kidd, 1979)로, 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여겨진다(Super & Knasel, 1981).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은 청소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발달과업에 대한 대처능력도 나이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기에 진로성숙도 구인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 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5). 또한 성인기

의 경우 청소년에 비해 재순환과 재탐색이 많아지고(Super, 1980) 보다 다양한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진로성숙의 개념으로는 성인기 진로발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Chan, Uy, Ho, Sam, Chernyshenko & Yu, 2015). 그러므로 성인기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에게 향후 변화하는 직업,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처도와 진로발달을 설명하기에 진로적응성이 더 적합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진로장벽

### 가. 진로장벽의 개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감 부족, 흥미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사회적 인식, 정보 부족, 나이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01; 이성식, 정철영, 2007). 이처럼 개인의 진로계획과 진로목표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인과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진로장벽이라고 한다(손은령, 2001). Tak과 Lee(2003)은 미래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진로장애로 설명하였다. 즉, 진로장벽은 취업, 진학, 승진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송병국, 전주연, 2013).

Swanson과 Woitke(1997)은 진로장벽을 개인내부와 환경 속에서 진로향상을 어렵게 하는 사건 또는 상황으로 정의함으로써 진로장벽의 개념에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을 포함시켰다. 손은령(2001)은 진로장벽을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적장벽은 심리적 측면으로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화 등을 이야기하였고, 외적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벽이라고 하였다.

진로장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박수현, 2015). Lynn(1997)은 진로장벽을 개인이 직면하여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진로장벽에 관한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Swanson과 Woitke(1997)은 진로장벽을 진로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 또는 개인이 처한 환경 내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함으로써 진로장벽이 변화 불가능한 것이 아닌 변화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복순(2011)이 진로장벽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학생이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진로장벽의 크기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요소에 대한 지각이 강할수록 진로발달에 갈등과 혼선을 가져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된다(김선중, 2005). 또한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로포부를 낮추게 되며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zzo, Hutcheson & Garrison, 1996). 이는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며,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이다.

#### 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 목표 및 목표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요인을 강조하며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맥락적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Lent, Brown & Hackett, 2000; Swanson & Woitke, 1997).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요소에 대한 지각이 강할수록 진로발달에 갈등과 혼선을 가져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된다(김선중, 2005). 또한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로포부를 낮추게 되며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zzo, Hutcheson & Garrison, 1996).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및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데(전주연, 송병국, 2014), 손은령(2001)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강원덕(2009)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유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가지효능감이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들은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Hirschi(2009)는 진로장애를 지각하는 경우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

게 되고 진로준비태도, 진로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장벽은 진로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적응력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장벽의 하위 변인 중 진로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가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주,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중점을 두고 선행요인으로 진로장벽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에 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장벽 하위요인별로 진로적응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낙관성

#### 가. 낙관성의 개념

낙관성은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다(Scheier & Carver). 또한 낙관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영역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적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심리적인 변인의 하나로서(Scheier, Carver, & Bridges, 1994), 주어진 상황에서의 희망적인 기대, 미래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뜻한다(손은령, 이순희, 2012). 최근 상담분야에서 내담자의 문제 중심적인 면보다 내담자의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어 내담자의 성장동기를 살피고자 하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전주연, 송병국, 2014). Seligman(1998)은 긍정적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직업적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Luthans(2002)는 긍정심리자본 개념을 개발하였는데,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 낙관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은영, 2013). 낙관성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으로써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긍정심리학의 관점과 진로상담의 목적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미래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낙관성은 진로상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이다.

청년기의 낙관성은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적응과 관련된다(Seligman, 1998). 낙관성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재해석의 사용과 상황의 현실성을 수용하는 경향성과도 관련이 있다(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적응이 가능하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방법에서 손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한다(Susan, 2000). 비관적인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보다 자신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적고 행복감을 더 적게 느끼며 긴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수현, 2015). 반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그 상황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무의식 속에서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Seligman, 1991). 이처럼 선행 연구들에서는 낙관적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여 성공적인 직업적 성취와 적응을 한다고 보고 있다.

낙관성은 주로 미래에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기질적 낙관성(Scheier & Carver, 1987)과 특정 사건이나 문제 상황의 원인들에 대한 귀인양식으로 긍정적인 인지적 태도의 틀 중 하나인 설명양식적 낙관성(손은령, 이순희, 2012)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적응성과 같은 진로 관련변인과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은 주로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진로관련변인에 적용하기에는 미래에 관한 전반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기질적 낙관성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최옥현과 김봉환(2006)의 연구에서도 진로 관련변인에 적용하기에는 기질적 낙관성이 설명양식적 낙관성보다 적절하다고 하였다.

#### 나. 진로장벽과 낙관성,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

진로장벽과 낙관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주연과 송병국(2014)은 진로장벽과 긍정심리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낙관성, 희망,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의 순서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전주연, 송병국, 2014).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이 진로장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부요인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낙관성이라는 요인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진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전주연, 송병국, 2014).

정은이(2010)는 진로장애가 대학생의 삶 만족과 긍정정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임경희(2009)는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격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진로장애를 지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진로 관련 변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정은이, 2014). 서유진(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진로장애와 낙관성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상희(2006)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낙관성과 진로장애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낙관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낙관성이 진로장벽과 진로관련 변인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여 진로장벽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실제 상담장면에서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낙관성의 개념을 진로영역에 접목시킨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손은령, 이순희, 2012). 낙관성과 관련된 진로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진로태도성숙, 진로의사결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졌다(서유진, 2007). 그 중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이다(Super & Knasel 1981). 진로적응성 관련 변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긍정적 정서기질과 낙관성이 포함되어 있다(Ashford & Taylor, 1990).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일에 대한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진로선택과 몰입, 개방성, 자율성, 경험의 성찰, 문화적응성, 창의성, 리더십 훈련, 긍정적 정서기질, 낙관성 등으로 볼 수 있다(이순희, 손은령, 2013). 진로적응성에 대한 개인차는 진로동기, 진로정체감, 정서적상태 등의 변인들에 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직업적 요구 및 적응에 대한 의식제고 및 진로태도성숙을 촉진하는 등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은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진로적응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예진, 2010; 장계영, 2012). 또한 김선중(2005)은 희망이 진로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는 변인임을 밝혀냈다. 성격관련 변인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낙관성이 높을 경우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순희, 2012). 박성실(2012)과 이상희(2005)의 연구에서도 낙관성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낙관성은 정서적상태에 관한 변인으로써 많은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표집은 표집오차를 최소화하고 표본의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례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표 Ⅲ-1과 같이 각 대학별 학부 재학생수를 파악하였으며, 학교별 재학생 비율대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설문조사의 목적과 수행방법을 교육 받은 조사요원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진행하였다. 회수된 500부 중 무성의하게 답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480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표 Ⅲ-1. 모집단(제주특별자치도 4개 대학 재학생 수)

구분	재학생 (명)	구성비율 (%)	배부수 (부)	유효응답 (부)	응답율* (%)
A대학교	2,074	12.49	62	59	2.84
B대학교	1,464	8.82	44	43	2.94
C대학교	9,433	56.81	285	274	2.90
D대학교	3,633	21.88	109	104	2.86
합계	16,604	100.00	500	480	

$$* \text{응답율} = \frac{\text{유효응답}}{\text{재학생}} \times 100$$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전공계열, 학년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참여자는 남학생이 189명(39.4%)이고, 여학생이 291명(60.6%)이었다. 전공별 분

포는 인문사회계열 246명(51.3%), 자연공학계열 219명(45.6%), 예체능계열이 15명(3.1%)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57명(32.7%), 2학년 145명(30.2%), 3학년 125명(26.0%), 4학년 50명(10.4%), 5학년 이상이 3명(0.6%)이었다.

표 III-2.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480)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성별	남	189	39.4
	여	291	60.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46	51.3
	자연공학계열	219	45.6
	예체능계열	15	3.1
학년	1학년	157	32.7
	2학년	145	30.2
	3학년	125	26.0
	4학년	50	10.4
	5학년 이상	3	0.6

## 2. 측정도구

### 가. 진로적응성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장계영(2009)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적응성 검사를 이용하였다. 하위변인으로는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태도의 8개 영역을 포함하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손은령, 이순희(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적응성 척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책임감의 Cronbach's  $\alpha$ 는 .867, 목표의식의 Cronbach's  $\alpha$ 는 .909, 창의성의 Cronbach's  $\alpha$ 는 .896, 대인관계의 Cronbach's  $\alpha$ 는 .876, 개방성의 Cronbach's  $\alpha$ 는 .819, 주도성의 Cronbach's  $\alpha$ 는 .824, 직무능력의 Cronbach's  $\alpha$ 는 .825, 긍정적태도의 Cronbach's  $\alpha$ 는 .82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 III-3. 진로적응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80)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책임감	1, 2, 3, 4, 5, 6, 7	7	.867
목표의식	8, 9, 10, 11, 12, 13, 14, 15	8	.909
창의성	16, 17, 18, 19, 20, 21, 22	7	.896
대인관계	23, 24, 25, 26, 27	5	.876
개방성	28, 29, 30, 31, 45	5	.819
주도성	32, 33, 34, 35, 36	5	.824
직무능력	37, 38, 39, 40	4	.825
긍정적태도	41, 42, 43, 44	4	.820
전체		45	.958

## 나.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탁진국, 이기학(2001)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 5개 요인으로 되어 있다. 하위변인 중 직업정보 부족은 6문항, 나머지 하위요인은 각각 4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조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91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 III-4는 진로장벽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I-4. 진로장벽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80)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직업정보 부족	9, 10, 11, 12, 13, 14	6	.891
자기명확성 부족	15, 16, 17, 18	4	.895
우유부단한 성격	5, 6, 7, 8	4	.821
필요성 인식 부족	19, 20, 21, 22	4	.830
외적장애	1, 2, 3, 4	4	.737
전체		22	.911

### 다.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생활지향검사 개정판(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조하나(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LOT-R은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긍정적 문항 3문항과 부정적 문항 3문항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문항으로 낙관성을 측정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설문지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4개의 끼워넣은 문항들(filler items)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끼워 넣은 문항들(filler items)은 채점에서 제외하고, 3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점으로 환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낙관성 수준은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조하나(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전체 .6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42로 나타났다.

표 III-5. 낙관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80)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낙관성	1, 3*, 4, 7*, 9*, 10	6	.641
filler items	2, 5, 6, 8	4	.641
	전체	10	.642

\* 역채점 문항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의 하위변인, 낙관성,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다음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베리맥스 직각회전 방법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특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았다.

셋째,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 하위변인(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 낙관성, 진로적응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 하위변인들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 분석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결과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유의미한 매개효과라고 판정한다.

## IV. 연구결과

### 1.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진로장벽, 낙관성, 진로적응성 3가지이다. 그 중 진로장벽 측정도구는 분석과정에서 변인 전체뿐만 아니라 5개의 하위변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진로장벽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한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각회전방법 중에 하나인 베리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은 고유값 1.0 이상, 공통성 0.4 이상, 총 분산 비율 60% 이상, 요인적재값 0.4 이상인 변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진로장벽 측정도구의 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5개의 요인으로 요인화가 되었다. 공통성은 모두 0.4 이상이었으며, 측정도구의 각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5개의 요인으로 잘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사용한 진로장벽 측정도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장벽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IV-1에 제시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비율은 67.094%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직업정보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된 분산비율은 17.360%로 나타났으며, 요인 2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자기명확성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된 분산비율은 14.625%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된 분산비율은 12.394%로 나타났으며, 요인 4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된 분산비율은 11.71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외적장애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된 분산비율은 11.002%로 나타났다.

표 IV-1. 진로장벽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N=480)

하위 변인	문항 번호	요인적재값					공통성
		1	2	3	4	5	
직업정보 부족	11	.784	.155	.107	.174	.143	.701
	13	.758	.227	.198	.126	.216	.729
	12	.756	.096	.179	.148	.191	.671
	10	.720	.232	.099	.185	.057	.619
	9	.707	.243	.054	.216	.183	.642
	14	.637	.428	.145	.070	.108	.626
자기명확성 부족	16	.258	.808	.115	.190	.098	.779
	18	.173	.804	.137	.212	.148	.762
	15	.351	.788	.100	.133	.071	.776
	17	.220	.769	.103	.248	.070	.717
필요성 인식 부족	19	.057	.201	.816	.024	.050	.713
	20	.185	.104	.811	.018	.088	.712
	21	.178	.121	.810	.070	-.026	.707
	22	.094	-.025	.730	.128	.146	.581
우유부단한 성격	7	.171	.198	.057	.869	.049	.830
	8	.214	.184	.068	.820	.020	.757
	6	.174	.195	.100	.753	.127	.661
	5	.293	.343	.074	.442	.275	.480
외적장애	2	.074	.120	.079	.002	.804	.672
	1	.089	.042	.105	.007	.789	.643
	4	.203	.043	-.004	.214	.672	.540
	3	.208	.109	.058	.058	.617	.442
고유값		3.819	3.218	2.727	2.577	2.420	
설명분산		17.360	14.625	12.394	11.712	11.002	
누적분산		17.360	31.985	44.380	56.092	67.094	

##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진로적응성, 낙관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01 유의수준 하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유부단한 성격( $r=-.531^{**}$ ,  $p<.01$ ), 자기명확성 부족( $r=-.464^{**}$ ,  $p<.01$ )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업정보 부족( $r=-.398^{**}$ ,  $p<.01$ ), 필요성 인식 부족( $r=-.245^{**}$ ,  $p<.01$ ), 외적장애( $r=-.140^{**}$ ,  $p<.01$ )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 하위요인들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변인간의 상관계수 (N=480)

	1	1-1	1-2	1-3	1-4	1-5	2	3
1. 진로장벽	1							
1-1. 직업정보 부족	.863 <sup>**</sup>	1						
1-2. 자기명확성 부족	.793 <sup>**</sup>	.602 <sup>**</sup>	1					
1-3. 우유부단한 성격	.738 <sup>**</sup>	.532 <sup>**</sup>	.552 <sup>**</sup>	1				
1-4. 필요성 인식 부족	.568 <sup>**</sup>	.364 <sup>**</sup>	.314 <sup>**</sup>	.242 <sup>**</sup>	1			
1-5. 외적장애	.575 <sup>**</sup>	.414 <sup>**</sup>	.293 <sup>**</sup>	.304 <sup>**</sup>	.200 <sup>**</sup>	1		
2. 낙관성	-.359 <sup>**</sup>	-.249 <sup>**</sup>	-.292 <sup>**</sup>	-.377 <sup>**</sup>	-.154 <sup>**</sup>	-.230 <sup>**</sup>	1	
3. 진로적응성	-.509 <sup>**</sup>	-.398 <sup>**</sup>	-.464 <sup>**</sup>	-.531 <sup>**</sup>	-.245 <sup>**</sup>	-.140 <sup>**</sup>	.455 <sup>**</sup>	1

\*\*\* $p<.001$ , \*\* $p<.01$

진로장벽과 낙관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01 유의수준 하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낙관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유

부단한 성격( $r=-.377^{**}$ ,  $p<.01$ ), 자기명확성 부족( $r=-.292^{**}$ ,  $p<.01$ ), 직업정보 부족( $r=-.249^{**}$ ,  $p<.01$ ), 외적장애( $r=-.230^{**}$ ,  $p<.01$ ), 필요성 인식 부족( $r=-.154^{**}$ ,  $p<.01$ ) 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 하위요인들이 높아질수록 낙관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관성과 진로적응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01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을 통하여 진로장벽 및 진로장벽 하위요인과 진로적응성, 낙관성과는 부적 상관이 확인 되었으며, 낙관성과 진로적응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에 적합한 상관관계라고 본다.

### 3.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표 IV-3.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N=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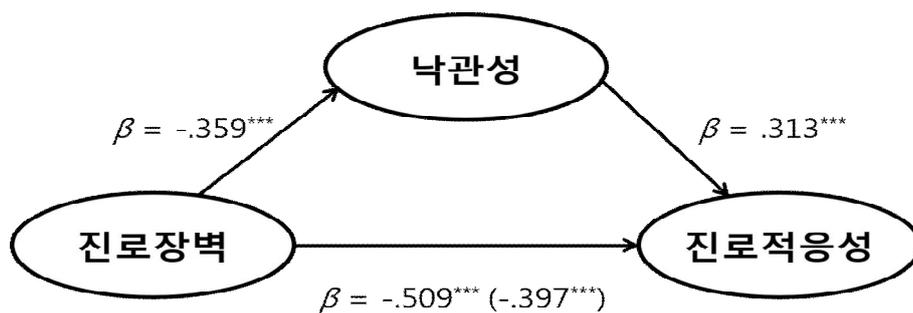
단계	독립/매개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비표준화		표준화	t	
					계수 B	SE	계수 $\beta$		
1단계	독립 → 매개	진로장벽	낙관성	.359	70.922***	-.323	.038	-.359	-8.422***
2단계	독립 → 종속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509	166.713***	-.430	.033	-.509	-12.912***
3단계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587	124.852***	-.335	.034	-.397	-9.969***
		낙관성				.294	.037	.313	7.859***

Sobel Z통계량  
Z = -5.80462749\*\*\*

비표준화 계수 B<sub>a</sub> = -.323, 표준오차 SE<sub>a</sub> = .038

비표준화 계수 B<sub>b</sub> = .294, 표준오차 SE<sub>b</sub> = .037

\*\*\*p<.001, \*\*p<.01



\*\*\*p<.001, \*\*p<.01

그림 IV-1.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이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beta=-.359, p<.001$ ), 첫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로 독립변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eta=-.509, p<.001$ ), 두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진로장벽과 낙관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313, p<.001$ ),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97, p<.001$ ),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5.80462749(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하위요인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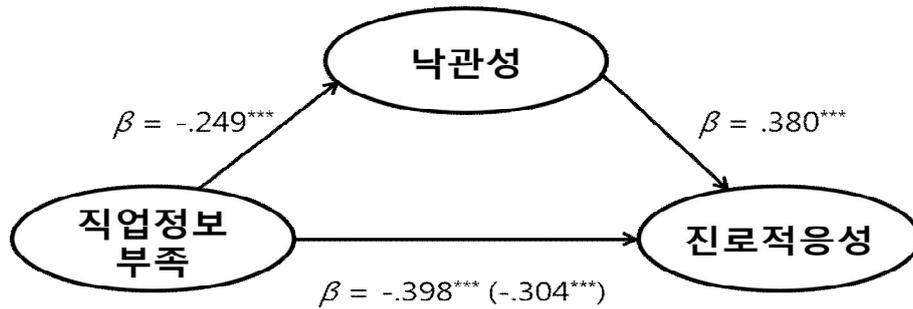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표 IV-4.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N=480)

단계	독립/매개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비표준화		표준화	t	
					계수 B	SE	계수 β		
1단계	독립 → 매개	직업정보 부족	낙관성	.062	31.477***	-.159	.028	-.249	-5.610***
2단계	독립 → 종속	직업정보 부족	진로적응성	.158	89.803***	-.239	.025	-.398	-9.476***
3단계	독립 → 종속	직업정보 부족	진로적응성	.294	98.982***	-.182	.024	-.304	-7.639***
	매개 → 종속	낙관성				.357	.037	.380	9.549***
Sobel Z통계량				비표준화 계수 B <sub>a</sub> = -.159, 표준오차 SE <sub>a</sub> = .028					
Z = -4.89391301***				비표준화 계수 B <sub>b</sub> = .357, 표준오차 SE <sub>b</sub> = .037					

\*\*\* $p < .001$ , \*\* $p < .01$



\*\*\* $p < .001$ , \*\* $p < .01$

그림 IV-2.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직업정보 부족과 진로적응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업정보 부족이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beta = -.249$ ,  $p < .001$ ), 첫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로 독립변인 직업정보 부족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eta = -.398$ ,  $p < .001$ ), 두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직업정보 부족과 낙관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380$ ,  $p < .001$ ), 독립변인인 직업정보 부족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04$ ,  $p < .001$ ),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직업정보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4.89391301$  ( $p < .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성은 직업정보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표 IV-5.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N=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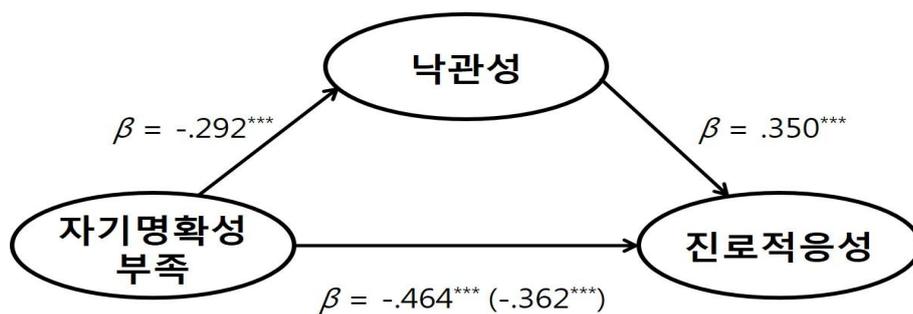
단계	독립/매개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비표준화		표준화	t	
					계수 B	SE	계수 β		
1단계	독립 → 매개	자기명확성 부족	낙관성	.085	44.625***	-.167	.025	-.292	-6.680***
2단계	독립 → 종속	자기명확성 부족	진로적응성	.215	130.731***	-.249	.022	-.464	-11.434***
3단계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자기명확성 부족	낙관성	.327	115.570***	-.194	.021	-.362	-9.201***
						.328	.037	.350	8.890***

Sobel Z통계량 Z = -5.33492999\*\*\*

비표준화 계수 B<sub>a</sub> = -.167, 표준오차 SE<sub>a</sub> = .025

비표준화 계수 B<sub>b</sub> = .328, 표준오차 SE<sub>b</sub> = .037

\*\*\*p<.001, \*\*p<.01



\*\*\*p<.001, \*\*p<.01

그림 IV-3.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자기명확성 부족과 진로적응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이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beta=-.292, p<.001$ ), 첫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로 독립변인 자기명확성 부족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eta=-.464, p<.001$ ), 두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자기명확성 부족과 낙관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50, p<.001$ ), 독립변인인 자기명확성 부족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62, p<.001$ ),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자기명확성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5.33492999$  (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성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표 IV-6.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N=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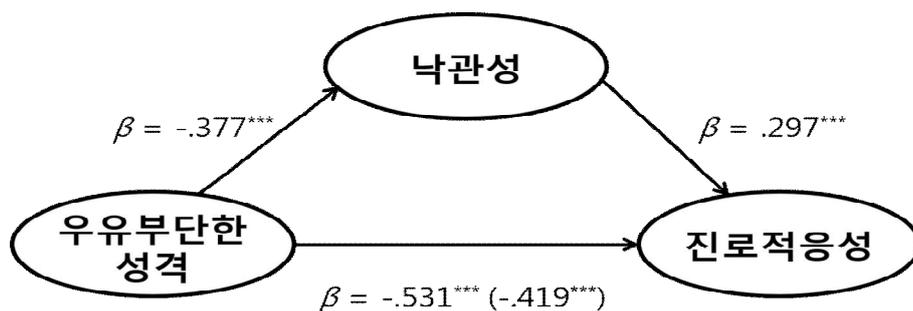
단계	독립/매개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비표준화		표준화	t	
					계수 B	SE	계수 β		
1단계	독립 → 매개	우유부단한 성격	낙관성	.142	79.055***	-.239	.027	-.377	-8.891***
2단계	독립 → 종속	우유부단한 성격	진로적응성	.282	187.301***	-.317	.023	-.531	-13.686***
3단계	독립 → 종속	우유부단한 성격	진로적응성	.358	132.622***	-.250	.024	-.419	-10.568***
	매개 → 종속	낙관성				.279	.037	.297	7.500***

Sobel Z통계량  
Z = -5.74016170\*\*\*

비표준화 계수 B<sub>a</sub> = -.239, 표준오차 SE<sub>a</sub> = .027

비표준화 계수 B<sub>b</sub> = .279, 표준오차 SE<sub>b</sub> = .037

\*\*\*p<.001, \*\*p<.01



\*\*\*p<.001, \*\*p<.01

그림 IV-4.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우유부단한 성격과 진로적응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우유부단한 성격이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beta=-.377, p<.001$ ), 첫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로 독립변인 우유부단한 성격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eta=-.531, p<.001$ ), 두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우유부단한 성격과 낙관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297, p<.001$ ), 독립변인인 우유부단한 성격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19, p<.001$ ),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우유부단한 성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5.74016170$  (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성은 우유부단한 성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표 IV-7.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N=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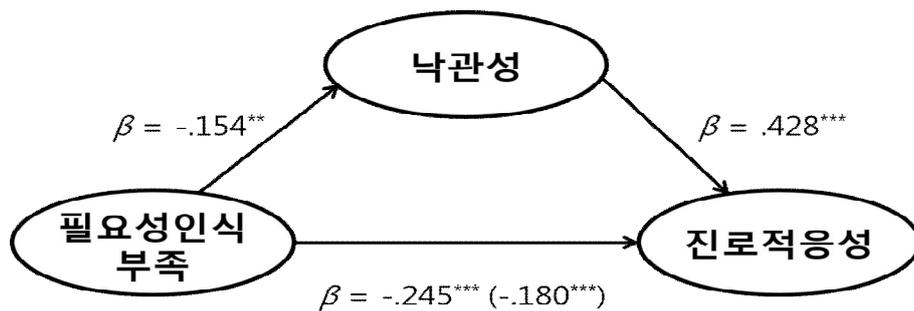
단계	독립/매개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1단계	독립 → 매개	필요성 인식 부족	낙관성	.024	11.627**	-.107	.031	-.154	-3.410**
2단계	독립 → 종속	필요성 인식 부족	진로적응성	.060	30.576***	-.160	.029	-.245	-5.530***
3단계	독립 → 종속	필요성 인식 부족	진로적응성	.239	74.625***	-.117	.026	-.180	-4.441***
	매개 → 종속	낙관성				.402	.038	.428	10.563***

Sobel Z통계량 Z = -3.28137250\*\*\*

비표준화 계수 B<sub>a</sub> = -.107, 표준오차 SE<sub>a</sub> = .031

비표준화 계수 B<sub>b</sub> = .402, 표준오차 SE<sub>b</sub> = .038

\*\*\*p<.001, \*\*p<.01



\*\*\*p<.001, \*\*p<.01

그림 IV-5.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필요성 인식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필요성 인식 부족과 진로적응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필요성 인식 부족이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beta=-.154, p<.001$ ), 첫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로 독립변인 필요성 인식 부족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eta=-.245, p<.001$ ), 두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필요성 인식 부족과 낙관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428, p<.001$ ), 독립변인인 필요성 인식 부족이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180, p<.001$ ),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필요성 인식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3.28137250(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성은 필요성 인식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외적장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표 IV-8.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외적장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N=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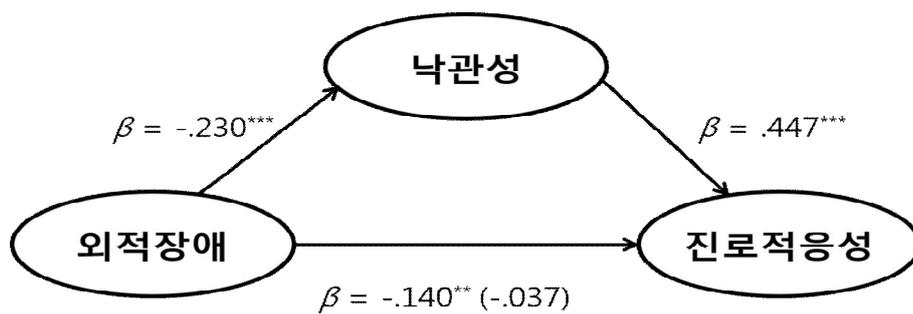
단계	독립/매개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1단계	독립 → 매개	외적장애	낙관성	.053	26.620***	-.181	.035	-.230	-5.159***
2단계	독립 → 종속	외적장애	진로적응성	.020	9.497**	-.104	.034	-.140	-3.082**
3단계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외적장애 낙관성	진로적응성	.208	62.682***	-.028	.031	-.037	-0.888
						.420	.039	.447	10.659***

Sobel Z통계량  
Z = -4.66179088\*\*\*

비표준화 계수 B<sub>a</sub> = -.181, 표준오차 SE<sub>a</sub> = .035

비표준화 계수 B<sub>b</sub> = .420, 표준오차 SE<sub>b</sub> = .039

\*\*\*p<.001, \*\*p<.01



\*\*\*p<.001, \*\*p<.01

그림 IV-6.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외적장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외적장애와 진로적응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외적장애가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beta=-.230, p<.001$ ), 첫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2단계로 독립변인 외적장애가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eta=-.140, p<.001$ ), 두 번째 검증 조건을 만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외적장애와 낙관성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447, p<.001$ ), 독립변인인 외적장애가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37, p<.001$ ), 그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외적장애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4.66179088(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성은 외적장애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완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살펴보면 자신의 노력한 만큼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요소, 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소에 따라 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는 취업을 비롯한 진로문제에 당면한 대학생들에게 노력을 하더라도 진로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급변하는 진로·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다시 불가능이라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어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 자원인 낙관성을 향상하도록 돕고자,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연구의 의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와 진로적응성간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진로장애와 진로적응성이 부적상관이라는 정은이(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진로장벽의 하위변인과 진로적응성 간에 부적상관이 있다는 조현주(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내적·외적 진로장벽을 인식 할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아져 진로계획에 어려움을 느끼고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장벽과 낙관성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박수현(2015)

이 진로장벽과 낙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변인과 낙관성이 부적상관 보인다고 밝힌 결과와, 정민과 노안영(2008)이 지각된 진로장애가 낙관성을 낮춘다고 이야기한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이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 할수록 중요한 성격자원인 낙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낙관성과 진로적응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유기은과 이기학(2015)은 낙관성이라는 개인의 성향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순희(2012)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낙관적인 성향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상황 또한 긍정적으로 대비하는 심리적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대학생들이 진로장벽을 인식할수록 진로계획에 어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직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낙관성을 인식 할수록 진로적응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인지적 변인인 낙관성에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서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낙관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낙관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이 직접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매개변인인 낙관성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낙관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학생 진로상담 시 낙관성이라는 인지적 변인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진로적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인식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상담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인의 원인으로 고려되며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작용하

는 방식에 따라 역동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손은령, 이순희, 2012).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진로계획 및 목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진로장벽 자체를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높은 청년실업률은 대학생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같은 객관적인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요인에 좌우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개입을 통하여 낮추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이는 주관적인 인지적 요소인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절망감을 감소시키고, 진로적응성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진로·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각 하위요인별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낙관성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낙관성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외적장애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낙관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외적장애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낙관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외적장애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진로장벽

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진로계획 및 목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심리적측면의 내적장벽과 환경적 측면인 외적장벽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정민과 노안영(2008)의 연구에서 내적 진로장벽인 경우에는 진로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낙관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낙관성의 향상이 진로장벽 중 외적장애를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외적장벽은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낙관성이 외적장애를 완전매개함으로서 인지적 개입을 통해 환경에서 느끼는 부정적 장벽을 최소화 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는 것은 대학생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진로장벽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인이기도 하지만, 그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로장벽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기는 하나 하위요인 각각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대학생의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보다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유형에 맞추어진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 현재 느끼고 있는 진로장벽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효과적으로 내담자의 수요에 적합한 진로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과 하위요인들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낙관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담자 차원에서 낙관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진로상담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이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진로장벽 자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진로장벽, 특히 외적요인에 의한 진로장벽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상담자나 내담자인 대학생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정책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13개 부처에서 57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매일경제, 2016), 부처별로 각종 정책들이 흩어져 있어서 정책 패키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중소기업뉴스, 2016). 이는 대학생들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각 부처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15.8%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업정보 제공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어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은 통치자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으며, 다른 정책과도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고 진로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찾아온 대학생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충분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직업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 목록화 하고 내담자에게 제공하여 진로장벽의 객관적 실체를 제거해줌과 동시에 진로장벽을 마주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낙관성 향상을 위한 상담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을 연구하여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진로장벽은 그 자체를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각 개인이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강도가 결정되므로, 낙관성이라는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개입을

통하여 진로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로상담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외적장애가 완전매개 함을 밝혔다. 진로장벽은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 중 외적장벽은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중 외적장벽은 인지적인 개입을 통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라는 주관적인 인지적 변인이 외적장애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진로상담 과정 중 낙관성을 향상시켜 진로적응성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차별화된 상담적 접근이 가능함으로 살펴보았다. 진로장벽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도 큰 틀에서는 진로장벽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개인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생에 대한 진로상담을 접근함에 있어 대학생이 현재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유형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유형에 적합하도록 차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진로문제를 상담함에 있어 진로장벽이 하나의 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일률적으로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내담자 개개인의 진로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담 전략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넷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객관적 실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직업정보 제공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위원회 등 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개변인인 낙관성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로장벽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상담자는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만 보고 안주하기 보다는 진로장벽의 객관적 실체를 제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동시에 낙관성이라는 인지적 개입을 진행한다면 진로장벽을 인식한 대학생 내담자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을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이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낙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는 응답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할 경우 실제와 다르게 측정되어 왜곡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에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관찰, 면접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진로적응성 척도는 각 하위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척도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진로적응성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세분화된 연구를 실시한다면 좀 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여 상담장면에서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낙관성 척도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변안한 것으로 한국 대학생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각 사회는 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서 각 상황에서 인식하는 낙관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VI. 참고문헌

- 강원덕(2009).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소(2014).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경, 이희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나래(2013). 대학생의 내적통제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2015).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영, 배성아(2014).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429-448.
- 김은영(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황매향(2004).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637-646.
- 매일경제(2016). '중구난방' 청년일자리 정책...13개 부처에 무려 57개 사업.
- 박성실(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현(2015).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낙관성과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영(2011). **진로결정에 있어서 우연적 사건의 역할: 진로적응성을 매개효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진(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민(2016). **Meaning-Making 기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191-212.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 이순희(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 송병국, 전주연(2013).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1), 235-264.
- 신갑숙(2012).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남희, 홍은실(201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4), 143-157.
- 유기은, 이기학(2015).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통제력 착각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8(2), 65-86.
- 유미정(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성식, 정철영(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순희(2012).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충남대

-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희, 손은령(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 임경희(2009). 남녀대학생의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2(3), 101-119.
- 장계영(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계영, 김봉환(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선량, 김혜영(2004). 2004학년도 용인대학교 재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2, 141-162.
- 전주연, 송병국(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3), 171-200.
- 정민, 노안영(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91-405.
- 정은이(2010).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장애, 진로포부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4), 75-91.
- 정은이(2014). 대학생의 진로 장애와 대학 적응의 관계에 대한 진로 몰입 및 진로 적응성의 매개 효과. **진로교육연구**, 27(2), 1-21.
- 조은정, 이혜경(2014).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대학 생활적응 요인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113-127.
- 조하나(2002).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주(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의 관계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 및 조절 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61-75.
- 중소기업뉴스(2016). 부처별 흩어진 청년 일자리 정책 패키지화 바람직.
- 최옥현, 김봉환(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s Inventory(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통계청(2017). 2000-2016년 실업률 통계.
- Ashford, S. J., & Taylor, M. S. (1990). Adaptation to work transitions: An Integrative approach. In G.R. Ferris & K. M. Rowland (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8, 1-39.
- Chan, K. Y., Uy, M. A., Moon-ho, R. H., Sam, Y. L., Chernyshenko, O. S., & Yu, K. Y. T. (2015). Comparing two career adaptability measures for career construction theory: Relations with boundaryless mindset and protean career attitud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22-31.
- creed, P. A., Fallon, R., & Hood,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person and situation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in young adults. *Jo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219-229.
- Goodman, J. (1994). Career adaptability in adults: A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1), 74-84.
- Goodman, J., Schlossberg, N. K. & Anderson, M. L. (2006).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linking practice with theory(3rd ed)*.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hchology*, 47, 36-49.
- Luthans, F. (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 695-706.
- Luzzo, D. A., Hutcheson, & Garrison, K. (1996). Causal Attributions and sex difference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occupational barri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2), 124-131.

- Pulakos, E. K., Ared, S., Donoval, M. A. & Plamondon, K. E. (2000). Adaptability on the workplac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adaptive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ie*, *85*(4), 612-624.
-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cheier, M. F., Carb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Seligman, M. E. P. (1998).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ed Your Life*. pocket Books.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Super, D. E., & Kidd, J. M. (1979). Vocational maturity in adulthood: Toward turning a model into a meas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3), 255-270.
-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9*(2), 194-201.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E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 Tolentino, L. R., Garcia, P. R. J. M., Lu, V. N., Restubog, S. L. D., Bordia, P.,

& Plewa, C. (2014). Career adaptation: The relation of adaptability to goal orientation, proactive personality, and career optimis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1), 39-48.

<Abstract>

**The Effect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Oh Jong Cheol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r: Kim Sung Bo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if optimism mediates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adaptability. For this purpose, survey was conducted on 500 university students in Jeju-do. 480 copies of the 500 copies were used, except for 20 questionnaires with missing questions.

Study measurement tools are the followings: the measure of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developed by Jang Kye Young (2009),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 career barriers scale developed by Lee Kee Hak (2001), Scheire, Carver and Bridges(1994)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 was used by Jo Ha Na (2002). After SPSS 18.0 for Windows was utilized for analyses of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mediation effects, Sobel Test was implemented to attain the object of the research.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daptabilit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optimism.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career adaptability.

Second, in the effects that career barriers has on career adaptability, optimism was proven to have a partially mediation effect.

Third,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in the effects sub-factors of career barriers(the lack of job information, the lack of self clarification , the lack of personality, lack of awareness of necessity) on career adaptability, optimism was proven to have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s that career barriers(external barriers) has on career adaptability, optimism was proven to have a complete mediation effect.

This indicates that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affect career adaptability, but indirectly through optimism. As a resul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adapting to the career.

Key Words : Career Barriers, Career Adaptability, Optimism

## 부 록

부록 1. 진로장벽 척도

부록 2. 진로적응성 척도

부록 3. 낙관성 척도

--	--	--	--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진로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규정에 의해 여러분의 응답이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7. 3.

연 구 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오종철  
지도교수 : 김성봉(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 표를 하거나 답해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전공계열(학과)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예체능계열

3. 당신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부록 1> 진로장벽 척도

Ⅱ.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벌이나 연령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3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갖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9	현재로서는 직업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미래의 직업을 현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 인생에서 직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진로적응성 척도

Ⅲ.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소한 과제라도 꾸준히 열심히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계획한 것을 끝까지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어진 과제를 기대에 맞게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추구하는 목표가 확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목표를 향해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한 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성공을 위해 나만의 장점을 키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남과 다른 독특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속한 모임에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새로운 것들을 잘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잘 생각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실패를 무릅쓰고 내 아이디어를 실행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유연하게 사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나는 선·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평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동료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상사와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여러 사람들 간의 의견조율을 잘 이끌어낸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개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여러 의견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새로운 환경을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무엇인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기 위해 솔선해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낯은일을 자청해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관심 직업의 직무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관심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관심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직장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지금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시련이나 위기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새로운 환경을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낙관성 척도

IV.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쉽게 당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적으로 볼 때 나에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